

NH투자증권, ‘ROE 12%’ 위해 핵심사업 조직개편 단행

〈자기자본이익률〉

리테일, 책임경영 체계·AX 내재화
IB, 기업금융·부동산인프라 분리
운용, 고객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
홀세일, 밸류체인 완결성 확보

전사지원,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전문성·역량 갖춘 젊은 임원 중용

NH투자증권이 2026년 경영목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12%의 지속달성’을 위한 조직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1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우선 리테일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책임 경영체계’ 확립 및 AX(AI Transformation) 내재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의 WM사업부와 디지털사업부를 독립적인 ‘책임 경영체계’로 전환하여 채



서울 여의도 있는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NH투자증권

널 별 성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이에 Retail사업총괄부문은 폐지하고 “채널솔루션부문”을 신설해 두 사업부의 상품·컨텐츠 솔루션 제공과 개인·법인 통합 연금사업으로 업무 확장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사업부는 ‘미션 기반의 Cross-functional 조직’ 중심으로 개편해 AX 내재화와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IB부문에서는 핵심 역량에 집중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IB1사업부는 기업금융에 전문화된 조직으로서 ‘IB사업부’로, IB2사업부는 부동산과 인프라금융에 전문성을 둔 ‘부동산 인프라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각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조 하금융부의 발행어음 및 퇴직ELB 채권 운용 기능을 운용사업부로 이관해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발생 리

스크를 전면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운용사업 부문에서는 고객자금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IB사업부에서 이관받은 운용 기능과 대체자산투자 기능을 통합하고 ‘발행어음운용부’를 신설해 통합 운용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고객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모험자본 및 해외사모대출 등으로 투자 스펙트럼을 확장할 예정이다.

홀세일(Wholesale)사업 부문에서는 프라임 브로커리지(Prime Brokerage) 밸류체인 완결성 확보를 위해 스왑(Swap)팀을 ‘Swap부’로 개편하고, 홍콩 스왑 데스크(Swap Desk)를 산하로 편입해 스왑 비즈(Swap Biz)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프라임 브로커리지 비즈(Prime Brokerage Biz)의 밸류체인 완결성을 확보하여, 고객 다변화 및 수익구조

안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한 전사 지원 부문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부문’으로 개편하고,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리테일-IB-운용-Wholesale’ 핵심사업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와 함께 고객자금을 활용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향후 구조적인 수익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이날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능력 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들을 중용했다. /하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또 밸류에이션, 절대적·역사적 저평가 국면” ‘고공행진’ 은값, 사상 첫 온스당 60弗 돌파

로베코운용, 내년 경제 단기 반등 전망
美 증시, 금리인하로 강세장 지속 예상
韓, 주식시장 밸류업 가속화 관측
日·中 등 향후 성장성 ‘긍정적’ 제시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 자산운용이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점치며,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겸비한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된 ‘2026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수익률은 33.5%로, MSCI 미국 지수 수익률을 16.9% 상회한다.

미국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 주식시장이 고평가된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간사이를 금리인하 이후 통상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감 완화, 관세 불확실성 등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어 크랩 대표는 “2026년 금융시장의 기회 범위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라며 “달러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외 지역의 미국 대비 초과성과 발생 확률이 69%에 달한다”고 짚었다.



조슈아 크랩 로베코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개최된 ‘2026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아시아 시장의 경우, 각 국가별로 다른 베네핏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밸류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크랩 대표는 “한국의 밸류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대비 시장도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특히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의 노력은 법제화·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평가했다.

일본 역시 3~4년 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 증대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새로운 성장 동력 중 하나로는 미흡했던 인공지능(AI), 민간 설비투자자의 자본 지출 증가를 꼽았다. 크랩 대표는 “산업 구조 재편의 지속과 미흡했던 설비투자·자본 지출 증가로 기업들의 마진이 점차 상승할 것”이라며 “일본 내 과실이 늘고 있는 점도 소비기업 정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줄여주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아세안, 동남아, 중국 등의 향후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개별 종목 중 주가수익비율(PER) 11배 이하 구간에서 전술적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시장 안정성이 높은 선진 시장으로는 싱가포르와 호주를 꼽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美 금리인하 기대·공급부족 겹쳐
재고흐름, 美 핵심광물 등 변수될 듯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구리 가격도 상승세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더해 금과 달리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자금이 몰린 결과다.

9일(현지시간)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5분 기준 현물 은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4.5% 오른 온스당 60.77~60.79달러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리값도 급등세다.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9일 t당 1만14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 초(8800달러대)보다 30% 이상 올랐다.

은값 급등의 직접적인 배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다. 시장에서는 9~10일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됐다. 금리 인하는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은 같은 귀금속 투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은 가격 랠리를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요인은 실물 시장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다. 은은 보석·주화 수요뿐 아니라 전자제품,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산업용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돼 공급 확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인 인도 수요 급증과 은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이 겹치며 런던 귀금속 시장에서 이례적인 공급 압박이 발생했다. 이후 최근 몇 주간 런던 금으로 추가 물량이 유입되며 일부 완화됐지만, 지역별 재고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 내 은 재고는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로 전해졌다.

미국 재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지난 10월 기록한 올해 최고치에서 다소 감소했지만,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이 올해 은을 핵심 광물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향



은값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실버바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후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일부 물량이 미국 내에 묶이며 글로벌 공급 불균형을 더 키웠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기에 장외(OTC) 시장의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까지 더해지며 가격 변동성은 더욱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내년 통화정책 기조와 함께 지역별 은 재고 흐름, 미국의 핵심 광물 정책 및 관세 이슈가 당분간 은 가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상품·금융 서비스 그룹인 마렉스의 에드워드 메이어 분석가는 “최근 은값 상승세가 가파른 포물선형으로 움직인다”며 “은 랠리가 어디서 끝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 가격 상승으로 은 상장지수펀드(ETF)가 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은선물(H) ETF’의 1개월 수익률은 20.5%(NAV 기준)에 달한다. 전체 ETF 중 두 번째로 높다. 같은 기간 금 관련 주요 ETF의 1개월 수익률은 2~6% 수준이다.

연말 구리값 랠리가 나타난 것도 ‘공급 부족’ 가능성이 커져서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재고 증가에 따른 전 세계 구리 부족으로 내년 2분기 구리 가격이 t당 1만3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구리에도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기업들이 구리를 미리 쌓아두면서다. /하정윤 기자

업비트, 콜드월렛 보관 비중 99%까지 올린다

현재 핫월렛 1.67%, 콜드월렛 98.33%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10월 말 기준 업비트의 핫월렛 보관 비중이 1.67%라고 10일 밝혔다. 콜드월렛 보관 비중은 98.33%다.

핫월렛(Hot wallet)은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에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지갑이며, 콜드월렛(Cold wallet)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이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업비트는 이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98%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해 왔으며, 핫월렛 역시 1%대 수준으로 관리했다.

실제 업비트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가장 낮은 핫월렛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

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른 거래소들이 82~90% 수준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유지한 반면, 업비트는 98.3%로 가장 높았다.

디지털자산 가격 상승과 신규 거래지 원 확대로 입출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업비트는 고객 자산 보호에 매진하며 핫월렛 비중을 2% 미만으로 견고하게 유지했다. 이에 더해 향후 핫월렛 비중을 0%대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